

오르페우스 신화와 『금오신화』에 나타난 사랑과 생사관

삶의 절대적 조건, 죽음

질서, 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것일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교차로의 신호등 같은 것을 바로 연상할 수 있다. 법이나 각종 규범, 사회제도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통제하여 영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의 결과가 사회라는 사회계약론도 질서의 사회적 속성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질서가 항상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만 성립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개별자로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인 질서에 속박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죽음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으나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내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죽음은 실존 이전에 실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한성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부여한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스트루드브루그’라고 불리는 ‘불멸의 인간’을 소개한다. 걸리버는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처참하여 눈뜨고는 차마 보지 못할 장면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었다”고 말하는데, 루그나그라는 나라 전체의 인구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죽지 않는 인간들은 그 나라의 최하층에 속한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인간의 존엄은 끝이 있는 삶에서 삶의 매 순간에 부여하는 의미는 아닐까 생각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등 기술 발전을 발판으로 인간이 영생까지 넘보는 시대에 죽음은 극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세계관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친다. 동서양의 고

전에 나타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을 엿보는 것이 첨단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 저승으로 가는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는 아홉 명의 무사이 중 하나인 칼리오페이며 외할아버지는 제우스 신이다. 이야기의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오르페우스의 아버지는 트라키아의 왕인 오이아그로스이거나 아폴론이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으로부터 리라를 배웠고 학예의 여신인 어머니로부터는 시와 노래를 전수받았다. 오르페우스의 아버지가 트라키아의 왕이라면 오르페우스는 스스로 악기를 발명했을 것이다. 기악과 성악의 명인인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면 사나운 맹수도 온순해졌다고 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초목, 심지어는 돌과 쇠붙이까지 그의 음악에 반응했다고 하니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영웅들은 대체로 엄청난 힘을 가진 전쟁 영웅이다.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르페우스의 존재는 독특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시키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무력으로 상대를 억박지르는 영웅들과 달리 오르페우스는 감화와 설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인물이다. 오르페우스가 가진 음악이라는 무기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권력 행사 수단이다.

오르페우스가 가진 음악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대목이 저승에 가서 죽은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승과 저승은 쉽게 오가지 못하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믿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은유로 강물을 설정하기도 한다. 요단 강과 스틱스 강이 서양인의 인식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알려진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도 강은 삶과 죽음의 단절을 상징한다.

입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입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이할꼬.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는 에우리디케> 티치아노의 그림

미치광이 남편의 익사를 슬퍼한 그의 아내가 지었다는 이 노래에서 ‘물’은 두 가지를 지시한다. 3행의 물이 입을 빠져 죽게 하는 사인(死因)으로서의 물이고, 1행과 2행의 물은 건넌의 대상이다. 입은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물을 끝내 건너간다. 즉 이 물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이며 불가역의 상징이다. 4행에서는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무력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내 에우리디케가 독사에 물려 손쓸 새도 없이 즉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오르페우스도 고조선의 백수광부의 처가 느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오르페우스는 마침내 무력감을 털어내고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는 모험을 감행한다.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틱스 강을 건너야 한다. 카론의 배를 타지 않고서는 저승으로 갈 수가 없는데, 심사가 고악한 뱃사공 카론의 배에는 죽은 자만이 탈 수 있고 이마저도 뱃삿을 내야 한다. 오르페우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카론에게 뱃삿을 내지 않고 스틱스 강을 건넌, 예외적인 몇몇 중 한 사람이다. 헤라클레스가 힘으로 카론을 위협하여 배를 탄 데 반해, 오르페우스는 성미가 괴팍한 노인을 음악으로 감동시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머리가 셋 달린 저승의 개 케르베로스마저 음악으로 잠재운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신 플루토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난다.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신과 그의 아내 앞에서 에우리디케를 돌려달라고 노래한다. 에우리디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강조하며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도 저승에 있겠다는 배수진을 친 오르페우스는 플루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플루토의 사랑 이야기를 꺼낸다. 저승에 속한 플루토가 이승에 속한 페르세포네를 사랑하여 그녀를 저

승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이승에 속한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속한 에우리디케를 이승으로 데려가겠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오르페우스는 단순히 기교적으로 음악을 잘 연주하여 청각적인 쾌감을 선사한 댄따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고 이를 설득에까지 활용할 줄 아는 고차원적인 예술가이다. 이 노래를 듣고 복수의 여신도 난생처음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플루토는 에우리디케의 이승 귀환을 허락하지만 이 저승의 신은 부부에게 조건을 건다. 앞서가는 오르페우스가 뒤따르는 아내를 저승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대체로 똑같다. 소동이 멸망할 때 구원을 약속받은 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해 죽은 것처럼 이승의 입구에서 오르페우스는 아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저승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때 에우리디케의 한 발은 이승에 다른 발은 저승에 걸쳐져 있었다고 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계의 명언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플루토의 명령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보아서는 안 된다(혹은 볼 수 없다)는 것은 넘나들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엄격한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루벤스의 그림에서 리라를 든 오르페우스의 눈빛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플루토와 페르세포네를 쳐다보는 에우리디케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하다. 즉 플루토가 내건 금지는 오르페우스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은 뒤돌아보는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플루토는 에우리디케를 이승으로 보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플루토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의 분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질서이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루벤스의 그림



오르페우스는 아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저승까지 내려갈 결심을 하고, 자신이 가진 음악의 힘으로 실제로 저승에 가서 플루토의 허락까지 얻어내지만, 말 그대로 일보 직전에서 좌절하고 만다. 그리고 다시는 저승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었다. 상심한 오르페우스는 여성을 멀리하고 남색에 빠졌다가 디오니소스 신의 추종자 무리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다. 오르페우스를 노린 돌과 창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감화되어 오르페우스 앞에서 힘을 잃고 떨어졌으나,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무리가 만들어내는 소음에 묻히자 창과 돌은 오르페우스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다. 음악의 힘도 듣는 자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무력해진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으려 귀를 밀랍으로 막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는 죽은 사람으로서 두 번째로 저승에 갔고, 마침내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와 재회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는 일에 시비를 걸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서양의 작곡가들은 음악의 강력한 힘을 가진 오르페우스를 모티프로 작품을 썼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1567~1643)가 작곡한 최초의 오페라가 오르페우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르페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금오신화』 - 이승에서 죽은 자와 사랑하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다.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건국되었으며 멸망할 때까지 오백 년 내내 통치이념으로서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양란 이후 실학으로 불리는 개혁적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리학은 교조화되었고, 경직된 성리학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망국의 원인 중 하나로 지탄을 받는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신진사대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도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 등 다른 사상,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조예가 깊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매월당 김시습(1435~1493)도 그랬다.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 조선 전기의 초상화가 별로 없어 김시습의 초상은 가치가 높은 데다가, 관복이 아닌 야인의 의상과 패랭이를 쓴 모습의 선비 초상은 흔치 않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김시습의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인생역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초년부터 불교와 도교에 관심이 많아 유불선 3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던 김시습은 계유정난과 세조의 왕위 찬탈, 단종의 죽음을 목도하다 승려가 되어 속세를 떠난다. 그에게는 일련의 사건이 목불인견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는 세상을 버

린 김시습이 창조한, 현실과 판타지가 버무려진 세계이다. 『금오신화』의 '신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神話)'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의미하는 '신화(新話)'이다. 그러니까 금오신화는 경주의 금오산 자락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금오신화』는 현재 다섯 편만 전한다. 「만복사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저포(일종의 주사위) 놀이를 하며 사랑을 꿈꾸는 양생이 어떤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나, 이 여자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보는 이야기라는 뜻의 「이생규장전」에서는 한술 더 뜬다. 이생은 육신을 입고 돌아온 사별한 아내와 재회하여 사랑을 하지만, 결국 아내는 저승으로 돌아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생도 아내 뒤를 따른다는 내용이다.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은 술에 취하여 부벽정에 올라 아름다운 여인과 짧은 시간 동안 시를 읊으며 대화



<김시습 초상> 보물 제1497호,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국립국악원 교류공연 브랜드 작품 정가극 '영원한 사랑-이생규장전' 공연 사진

를 한다. 이 여인은 기자의 딸이자 하늘의 여인으로 역시 현실에 속해 있지 않다. 홍생은 이 여자를 그리워하다 죽는다. 『남염부주지』에서는 지옥에 대해 논하고, 『용궁부연록』의 주무대는 용궁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양생, 이생, 홍생 등으로 젊은 지식인 선비이다. 그런데 이들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은 아니고 반굴 기질이 있거나 사랑에 집착하거나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김시습 본인의 분신으로 읽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 신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인식은 동서고금이 비슷한 편인지 『용궁부연록』에는 “신과 인간은 서로 길이 막히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듯 『금오신화』의 주인공들도 용궁에 가거나 비록 꿈이지만 염라국에도 간다. 이를 보면 삶과 죽음이 분리된 질서를 현실에서 인정하는 것과 이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판타지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전하는 『금오신화』 다섯 편의 이야기 중 남녀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생규장전』이다. 고려 말 개성에 살고 있던 이생과 최랑은 뜨거운 사랑에 빠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홍건적의 침략의 와중에 이생은 겨우 목숨을 건지지만 최랑은 죽고 만다. 실의에 빠져 있던 이생 앞에 최랑이 나타나고 둘은 산 사람들처럼 사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최랑은 기한이 다 되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둘은 그렇게 두 번째 이별을 하고 혼자 남은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 최랑의 뒤를 따른다.

오르페우스 이야기와 『이생규장전』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텍스트라고 비약하여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이야기 구조가 닮았으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오르페우스와 이생은 모두 결혼한 다음 아내와 사별한다. 그러나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찾으러 저승으로 내려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인물인데 반해, 평범한 서생인 이생은 오르페우스처럼 하지 못한다. ‘신화(神話)’와 ‘신화(新話)’의 차이일까. 다음 단계에서는 반전이 일어난다. 능력남 오르페우스는 저승신의 허락을 얻지만 결국 아내를 이승으로 데려오는데 실패한다. 반대로 이생은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아내와 재회하여 다시 뜨거운 사랑을 한다. 그렇지만 이생의 환희도 끝이 난다. 이생의 아내 역시 에우리디케와 같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두 남자는 아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진짜 재회는 저승에서나 가능해진다.

사랑과 죽음, 영원과 찰나의 윤리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매우 어렵다. 번쩍이는 사랑의 순간은 시간의 풍화에 빛이 바래진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생과 최랑의 사랑은 빛이 바래지기도 전에 죽음이 개입하였다. 찬란하던 사랑의 순간은 박제로 굳어진다. 엄청난 음악의 포스를 자랑하던 오르페우스도 죽음의 압도적인 질서에는 무력해 보이는 이생과 똑같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두 이야기에서 나타난 사랑은 삶의 은유인 것 같기도 하다. 찰나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듯 세상에 태어난 이들 모두에게 삶이라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 동서양의 옛이야기를 읽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이를 만나서 사랑하고 나누고 이별하는 일에 관하여 생각한다. 죽음이 부여하는 유한한 삶은 진심과 사랑 덕택에 가치를 지닌다. 오르페우스와 이생의 삶과 죽음에서 이를 읽고 생각한다. 